

b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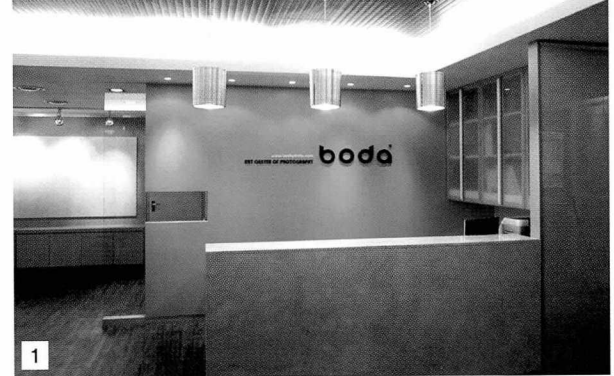
ART CENTER OF PHOTOGRAPHY

껍질을 깨고 세상을 보다 그리고 생각을 찍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사진아트센터 '보다' 포토 아카데미에 서라면 이러한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진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화에 있음을 강조하는 '보다'. 정직하고 정확한 교육을 표방하며 단순한 '이미지 메이커' (Image maker)가 아닌 감성을 찍을 줄 아는 '사진가' (Photographer)의 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육현장을 찾았다.

이미지 흥수의 시대의 아쉬움

최근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확산 덕분이다. 바야흐로 '1인 1카메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토록 대중화된 나라는 아마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듯 싶다. 그런데 간편한 콤팩트형 카메라에서 시작된 디카 열풍은 최근 또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DSLR카메라(Digital Single Lens Reflex)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이젠 장비만 가지고는 누가 프로이고 아마추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



1

- 1 보다건물과 입구 모습
- 2 디지털작업실
- 3 현상실
- 4 흑백암실
- 5 흑백암실 후처리실



2

어 버렸다.

사람들은 매일 수백만 아니 수천만 장의 사진을 찍는다. 보급된 카메라의 대수 만큼이나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함께 숨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만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사진'을 위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즉, 무작정 찍어댄 수많은 사진 가운데 운 좋게(?) 건진 몇 장의 사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적 상상력을 통해 가슴으로 찍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진아트센터 '보다'는 이러한 이미지 홍수의 시대속에서 순수사진을 지향하고, 표현수단으로서의 인화를 중요시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진의 제작방식인 아날로그와 현대의 화두인 디지털 사진교육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며 진정한 의미의 사진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입시 교육은 'NO' 순수사진을 위한 고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진아트센터 '보다' (대표 김수혁, www.bodaphoto.com)는 지난해 3월 3일 문을 열었다.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지난 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교육원인 네오모드를 흡수, 산하 교육센터로 운영하면서 교육기수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천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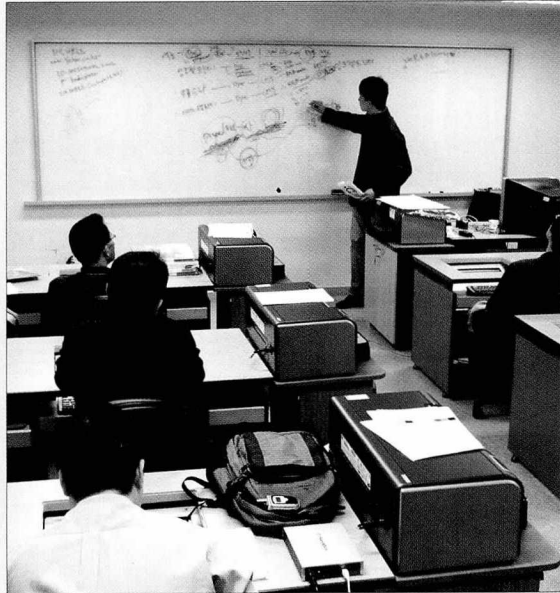
현재 제45기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이다.

'보다'는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죽집게 과외' 식의 입시교육을 기대하고 찾아 온 학생이라면 당황할 수도 있다. 학점은행제 및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편입제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본 교육 철학을 순수사진 영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사진작가들의 관심에서도 조금씩 멀어져 가는 아날로그 카메라나 흑백사진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은 예다. 이 때문인지 이곳에서 사진을 배우는 수강생들은 20대 이상의 성인들이 대부분이다. 아마추어 사진가,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사진기자, 기업 홍보실 근무자, 광고 디자이너 등 그 직업 또한 다양하다.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쾌적한 환경

사진교육은 시설과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마련. 그런면에서 '보다'의 최신 실습시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사진을 꼭 한 번 찍어보고 싶다'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항온시설을 기본으로 갖춰 놓은 흑백 대암실은 항상 일정한 결과를 유지해주며, 개인이 혼자서 전지작업까지 할 수 있는 흑백 개인암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한편 픽토크롬 4×5 인치 필름작업이 가능한 컬러암실에는 최고급 확대기와 콜렌타 자동인화기가 마련되어 있는 등 흑백, 컬러, 비은염, 디지털 등 모





〈정규과정 및 단기과정 교육내용〉

정규과정	순수예술사진과정/ 다큐멘터리사진과정 광고사진과정 / 디지털사진과정 포트폴리오제작과정
디지털단기과정	디카200%활용 / 포토샵 / 소핑몰사진제작과정 CMS/Digital Fine Art Print(Workshop) 사진합성 / 사진리터칭 / 디지털 스튜디오 PHASE ONE, CAPTURE 프로그램
단기과정	특수사진제작과정(비은화상제작기법) 기초사진 / 사진유학 · 대학원 진학과정 스튜디오라이팅 / 영어사진강좌

〈HP 포토 아카데미 주요 교육내용〉

초급과정	1.노출과 DSLR 카메라의 이해 2.라이팅을 이용한 인물촬영(화이트 밸런스의 이해) 3.촬영한 사진의 분류와 저장 4.포토샵 레이어의 이해 5.포토샵을 이용한 간단한 인물 리터칭 6.가정용 프린터와 포토용지를 이용한 출력 7.프린터 유지와 관리 8.프린트 실습
고급과정	1.사진 출력용 프린터의 종류 2.잉크젯 프린터의 종류와 미디어 특성 3.디지털 파인 프린트를 위해 프린터의 요구사항 4.염료잉크와 안료잉크의 비교 5.RGB 컬러모드와 CMYK 컬러모드 비교 6.일관된 색재현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 7.작업공간 셋팅 8.라미네이팅의 목적과 종류 9.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시연 10.프린터 ICC 프로파일 제작 시연 11.프린팅 실습

든 종류의 인화 실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흑백과 컬러암실에는 모두 별도의 후처리실이 있어서 사진 인화 후반작업의 편리성을 최대로 고려한 흔적이 돋보인다. 이밖에 다양한 조명장비와 배경지, 소품이 완비된 스튜디오, 최고 사양의 그래픽컴퓨터로 포토샵과 디지털 사진응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강의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다'에서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장비에 대한 관리·점검 책임을 총괄하는 램마스터를 두고 실습시설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메라 잘 몰라도 열정이 있다면 OK

'보다' 포토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크게 1년 코스의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뉜다. 정규과정은 다시 순수예술사진과정/다큐멘터리사진과정/광고사진과정/디지털사진과정/포트폴리오 제작과정으로 나뉘고, 이는 또 다시 초·중급·고급과정(4개월 가량씩 소요)으로 세분화된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사진이나 카메라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겁낼 필요는 없다.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수준별 수업과정을 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사진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특성화된 하나의 주제를 놓고 2~4개월간을 걸쳐 진행되는 단기과정은 어느 정도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동안 숙련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카 200% 활용하기, 소핑몰사진제작과정, 사진합성 등을 비롯한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단기과정의 경우는 그 모집 시기가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전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 3월 3일부터 '보다'는 HP와의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HP 포토 아카데미'를 개설, HP 프린터를 사용하는 유저 및 사진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프린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될 'HP 포토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활용 방법, 프린터 설정과 유지 관리를

비롯해 전문사진작가들을 위한 사진합성 테크닉, 사진리터칭에 대한 강의와 함께 HP 디자인젯 프린터의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사진예술학교로의 편입 혜택

‘보다’는 입시위주의 사진교육을 지양하지만,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진아트센터 ‘보다’ 산하 네오모드는 교육부 선정 학습은행제(한국교육개발원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증기관으로 최대 12학점의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사진학개론/기초사진 실습/사진촬영실습이 개설되어 있으며 오는 7월에 광고 사진실습 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해 일본사진예술학교(NPI)와의 편입과 교육교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정규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는 NPI로의 편입 특전의 길이 열렸다. 입학시험(일본어 필기테스트/작품심사)를 통과하면 2학년부턴 시작이 가능하며, 1년간 수업시, 일본문무과학성 고시 제84호 ‘전문사’ 칭호가 부여된다. 특히 입학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입학금 18만엔이 면제되며(1학년부턴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현지에서 특대생(장학생)으로 채택될 경우 70만엔 상당의 전,후기 학비가 면제된다.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유학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도 ‘보다’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유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 및 상담을 해줌으로써 자칫 유학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간·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영어권 국가 유학에 대비, 원어민 강사에 의해 100%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사진강좌를 개설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곧 ‘보다’의 얼굴이자 장차 우리나라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차한잔

김수혁 사진아트센터 보다 대표



“ 디지털에 움직이기
헤미가 아날로그 ”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의 보급은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에게도 창작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죠. 대중화의 측면에서 볼때 이는 무척 반가운 현상입니다. 다만 아마추어리즘의 확산에 비해 사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과 인화의 중요성을 못느끼면서 찍는 행위 그 자체만을 사진작업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이 발달하면 할수록 아날로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진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적인 눈과 상상력’은 바로 아날로그식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는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순수사진 영역에 뿌리를 두고 다양하고도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창작활동 여건이 부족한 예술작가들에게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서 작업을 후원하는 ‘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대학원생 이상 시각예술 작가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된 작가는 사진아트센터 ‘보다’의 촬영스튜디오와 컬러 인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부터는 일본사진예술학교와의 편입과 교육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으면서 수강생들이 좀 더 다양한 사진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한·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진이 좀 더 대중의 삶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